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개발¹⁾

김 양 희 (선임연구위원)

이 수 연 (연구위원)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검사개발과정
- III. 검사의 구조
- IV.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 V. 제언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의 남녀평등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들의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남녀평등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속에서 규정하게 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성(gender)과 관련한 고정관념이나 태도는 그들의 사회 행동, 교육활동, 직업적 목표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igler, 1997; Eccles 등, 1993). 구체적으로 성역할 태도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Langlois & Downs, 1980)는 물론, 의사결정(Martin, 1989), 개인적 관심사(Bussey & Bandura, 1992)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

1) 이 논문은 2002년 연구보고서 250-5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개인의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은 유아기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확립되는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만큼(Block & Robins, 1993),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남녀평등의식의 문제는 발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남녀평등의식을 발달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청소년기의 젠더관련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식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정교한 검사의 개발은 부진하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Gibbons 등(1991)은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211가지의 도구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검사는 극히 적은 숫자임을 지적한 바 있다. 청소년의 성역할 의식이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몇 안되는 검사에는 Kurdek과 Siesky가 BSRI(Bem, 1974)를 기초로 개발한 어린이 성역할자아개념척도(Children's Sex Role Self-Concept Inventory), Thomas와 Robinson(1981)의 청소년의 성역할 검사, Galambos 등(1985)이 개발한 청소년용 여성에 대한 태도검사(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for Adolescents : AWSA), 그리고 Signorella와 Gitelson(1985)의 어린이용 젠더 태도검사(Gender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 GASG)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어 온 AWSA는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2/3정도가 교육, 스포츠, 데이트와 관련한 소녀와 소년의 권리 및 역할에 대한 질문이고, 나머지는 부모역할이나 기타 가정내 역할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희(1988)가 BSRI의 형용사 목록과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용 성역할 검사도구인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를 개발하면서 조사 대상자 723명 중 중학생을 235명을 포함시켰으나 중학생을 위한 질문을 차별화 하거나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후 김영희(1995)는 KSRI를 모체로 하여 학령전 아동의 한국형성역할검사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들은 남녀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련의 형용사들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서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국내에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표준화된 검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는 13세~18세를 위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 KGES-A)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검사가 상정하는 대상집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므로 이 학년대의 남녀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의 구조를 파악한 후에 검사를 개발하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검사개발과정

A. 남녀평등의식 개념의 정의

남녀평등주의(gender egalitarianism)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연구자들은 한편으로 기존에 개발된 성 관련 검사들의 이론적 배경, 성평등이나 성차별을 다룬 관계 문헌, 유엔 자

료들을 검토하였다. 그와 함께 사회심리학에서 태도의 3요소로 이론화하고 있는 고정관념(stereotype, 인지적 요소), 편견(prejudice, 감정적 요소), 차별(discrimination, 행동적 요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평등주의를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B. 조사 실시

검사 개발은 총 5회에 걸쳐 중·고등학생과 젠더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와 중·고등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조사로 구성된다.

1. 예비조사 실시

- 가. 예비조사 1 : 남녀평등의식 개념정의 및 문항 원집합(item pool) 구성을 위해 남녀 중, 고등학교 학생 총 120명을 조사하였다.
- 나. 예비조사 2 : 문항의 내용 타당화를 위해 남녀 여성문제 전문가 10인에게 미리 마련된 문항에 대한 하위영역 분류 및 남녀평등의식 반영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 다. 예비조사 3 : 문항의 내용 타당화를 위해 예비조사2 이후 선별, 수정된 문항에 대하여 남녀 중, 고등학교 학생 76명에게 하위척도별로 분류하게 하였다.
- 라. 예비조사 4 : 문항의 내용 타당화를 위해 남녀 중, 고등학교 학생 76명에게 각 문항의 이해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 마. 예비조사 5 : 검사지(안)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남녀 중, 고등학교 학생 총 395명에게 예비조사 4까지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검사지(안)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조사 실시

최종 확정된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검사의 표준화 및 규준 마련을 위해 최종 개발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가지고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중, 고등학교 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검사의 구조

성인용 검사를 개발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검사의 구조로 생활영역 차원과 평등성의 질 차원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비조사1의 결과 청소년들의 경우 삶의 경험 이 제한되어 성인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성차별에 노출될 기

회가 부족하고, 평등정책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항제작에서 평등성의 질을 고려하되, 이를 별도의 차원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검사의 구조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개인의 삶의 공간 영역을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네 가지로 나눈 것으로서, 각 영역별 점수는 하위 척도 점수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활영역별로 하위척도를 두는 또 다른 의미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직업적 생활에서는 성평등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 가정생활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등 삶의 영역별로 평등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이론적 구조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다.

- ① 가정 생활 :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남자와 여자의 집안일 하기, 부모/부부 상호간의 권한과 관계에 대한 태도, 가족 내 성차별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함.
- ② 학교 생활 : 학교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남녀 학생의 지적 능력과 잠재력, 학교교육의 기회, 진로교육, 체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등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함.
- ③ 직업 생활 : 직업 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취업활동과 관련한 남녀의 능력, 남자와 여자의 직업진로와 적성, 직업 현장에서의 남녀간 역할과 행동규범, 권한과 관계, 성차별 등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함.
- ④ 사회문화 생활 : 가정이나 직업 영역 이외의 일반적 사회문화 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척도로서, 남녀학생의 대인관계, 성행동, 사회에서의 역할과 행동규범, 미디어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관련 문항들을 포함함.

IV.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A. 타당도 분석

1. 기초문항분석

가. 반응비율, 편포 정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각 문항에서의 응답비율, 각 문항의 응답지별 반응비율, 편포정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여기서는 본 검사에 사용된 최종 문항들에 응답지별 반응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응답 항목별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의 편포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데, 이와 함께 실제 편포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빈도분석에서 skewness 수치)를 검토하였을 때 60개 문항 중에서 편포가 심하여 문제가 되는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해당 문항의 변별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서 예비조사 결과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사의 문항을 선정하는 기준에 포함된 바 있다. 즉, 평균이 3.5이상인 문항과 표준편차가 .5미만인 문항은 변별력

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한 것이다. 본 검사지는 그와 같은 문항이 이미 제거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3,150명이라는 새로운 표집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문항 중 평균과 표준편차가 그러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 문항-척도 상관관계

흔히 문항-척도 상관관계는 중다응답지 양식에서의 가장 좋은 지표로 간주된다(Nunnally, 1978). 특히 오차검증에 대한 고전적 모델에서는 문항-전체척도 상관이 문항과 척도 문항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과의 상관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간주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3이상일 때 해당 문항이 선택된다. 그리고 만일 능력 검사와 같이 성차가 배제된 검사도구를 개발할 때에는 문항-전체 분석이 성별로 이루어져서 각각에서 상관계수가 모두 .3이상인 것을 선택하게 된다(Kline, 1993, 148~149쪽).

먼저 가정생활척도의 경우를 보면 문항과 그가 속한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Pearson Product Moment 상관계수는 가장 낮은 것이 .472였고 가장 높은 것이 .718이었다. 예비조사와 달리 본조사 결과의 분석이 문항을 선별하기 위한 분석은 아니지만 문항 선별시 문항-전체의 상관계수가 .3이상인 것을 선택한다는 기준에서 볼 때 가정생활 척도를 구성하는 15개의 문항 모두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학교생활척도에서는 문항과 그가 속한 하위척도간의 상관계수는 .308~.690 사이로 나타난다. 학교척도를 구성하는 15개의 문항 중 문항-하위척도 상관계수가 .3이하인 것은 없었다. 세 번째로 직업생활척도의 경우에도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는 .466~.701 사이였으며, .3이하인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생활 척도에서 문항-하위 척도가 상관관계 계수가 가장 낮은 것은 .361, 가장 높은 것은 .668로 나타났으며, 계수가 문항 선별 기준인 .3이 되는 않는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이상에서 문항-척도간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문항이 60개 중 하나도 없어, 앞에서 제시한 각 문항의 반응비율과 편포, 평균과 표준편차 등과 함께 문항양호도 지표들을 중심으로 볼 때 본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척도별 상관관계

하위척도들의 타당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하위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각 하위척도간 상관관계의 계수는 .772~.850사이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상관계수의 정도가 중학생과 고등학생간 거의 차이가 없었다.

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추출 모델 중에서 공통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은 서로 상관이 없는(orthogonal) 주요인들로 변인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서, 요인 수를 최소화하면서 공통분산(common variance : 분산 중에 공통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고유분산(unique/specific variance :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문항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분산), 오차분산(error variance : 검사의 신뢰도가 측정하는 진정한 분산이 아닌 나머지)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한다. 주요인분석에서는 상관계수 행렬의 대각선에 1을 지정한다. 이는 실제 상관계수 행렬에서 특정 변인은 자기 자신과 1.00의 상관을 보인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런데 대부분

의 요인분석에서는 목적이 공통요인분산과 고유분산을 분리하는데 있는데, 주 요인분석에서는 그 분리가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line, 1993).

반면 공통요인분석(classical factor analysis 또는 common factor analysis)은 관찰된 변인이 여러 가지 결정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 다른 변인들과 공유하는 것(common determinants)과 공유하지 않는 고유의 것(unique determinants)들을 분리하는데 의미를 둔다. 이점은 공통요인분석의 장점으로 간주된다(Nunnally, 1978 ; Nie 등, 1975). 공통요인분석에서는 상관관계 행렬의 대각선을 커뮤날리티(communality : 공통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로서 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량을 제공하여 합한 것)로 바꾸어서, 즉 공통 분산만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분산과 고유분산을 분리하는 데 주요인분석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공통요인분석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요인분석에 기초하여 문항을 선택할 경우 요인부하량 또는 적재량(factor loading)이 .3이상일 경우 의미있는 것으로 해석한다(Kline, 1993).

요인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남녀평등의식이라는 구성개념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설정한 이론적 구조를 상기하기로 한다. 제Ⅲ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청소년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중요한 차원은 생활영역차원(life domain dimension)이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이라는 사회심리학적 구인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요인들이 생활영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가정생활척도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여자와 남자의 속성과 역할, 권한 및 권력관계, 그리고 가족관행과 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다루는 총 1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가지고 공통요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sixs Factor-PAF)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믹스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 후 세 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 그 중 고유치(eigenvalue)가 1이 넘는 요인이 두 개였다. 두 개의 요인은 총 변량 중 46.5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 요인이 38.24%, 둘째 요인이 8.29%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에서 비교적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진 문항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의 경우 ‘집안 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맞는다,’ ‘여자가 집안 일을 할 줄 모르면 여자답지 않다,’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남편이 되어야 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등 10개 문항이었다. 이들의 부하량은 .676 ~ .377이었다. 이러한 문항들로 보아서 가정생활척도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첫 번째 요인(고유치 3.150)은 ‘전통적이며 가부장적 가족관’을 다루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들은 ‘설것이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동등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부부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어야 한다,’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 만들기는 남자도 함께 해야 한다’ 등 15개였다. 이들의 요인 부하량은 .627 ~ .509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정생활척도의 두 번째 요인은 ‘성평등 가족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나. 학교생활척도

다음에는 두 번째 하위척도인 학교생활척도의 15문항에 대해 역시 베리믹스 회전 방법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모두 두 가지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체 변량의 38.88%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고유치가 4.655로서 혼자 31.03%의 변량을 설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고유치가 1.177이었으며 7.8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들은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동아리의 대표는 남학생이 맡는 것이 좋다,’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에게 더 중요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 등 모두 10개 문항이었다. 이들의 첫 번째 요인에 대한 부하량은 .660~.291사이로 나타났으며, 내용을 보면 주로 ‘학교내 전통적 성역할 및 속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생활척도의 두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남녀 평등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남학생들에게 바느질, 요리 등을 가르치는 데 찬성한다,’ ‘여학생들에게 기계, 기술을 가르치는데 찬성한다’ 등 모두 다섯 가지였다. 두 번째 요인에 대한 이 문항들의 부하량은 .442~.326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들은 모두 ‘성평등 교육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다. 직업생활척도

다음으로 직업생활척도를 구성하는 열 다섯 개의 문항에 대해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통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들 전체가 설명하는 변량은 44.38%이었다. 이중 첫 번째 요인의 고유치는 5.630로 전체 변량의 37.53%를 설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의 고유치는 1.028이었으며 이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의 6.85%이었다.

직업생활척도의 첫 번째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정치인은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다,’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고위 관리직에 여자가 부족한 것은 여자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등 모두 11가지였다. 이들의 부하량은 .629~.445 사이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의 내용을 보면 이 요인은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은 문항으로는 ‘여자가 판·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 ‘직장에서 여직원에게만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자가 간호사나 유치원 선생님과 같이 여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등 모두 네 가지가 있었다. 두 번째 요인에 대한 이들의 부하량은 .566~.315사이였다. 이 요인은 ‘성평등한 직업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라. 사회문화생활척도

마지막 하위척도인 사회문화생활척도에 대한 주축요인분석 결과는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은 두 개였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의 37.51%였다. 첫째 요인은 고유치가 4.517로, 30.12%의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둘째 요인은 고유치 1.110으로 7.40%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은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남자는 담배를 피워도 되지만 여자는 피워서는 안된다,’ ‘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학생은 좋지 않다,’ ‘남자들 사이의 우정은 여자들 사이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간다,’ ‘순결을 지키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여자에게는 시집 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자가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등 모두 12개였다. 첫째 요인에 대한 이들의 부하량은 .536~.360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은 주로 ‘성차별적 행동규범 및 문화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은 문항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운동이나 단체활동이 필요하다,’ ‘더 많은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남녀차별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였으며, 부하량은 각각 .544, .528, .220이었다. 이 요인은 ‘성평등한 정치의식’을 나타낸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는 하위척도별 요인이 크게 각 생활영역과 관련되는 전통적이며 가부장적인 의식 및 관행을 나타내는 요인과 진보적이며 성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용 검사의 경우 요인구조가 더 복잡하게 나타났는

데먼저 가정생활척도의 총 20개 항목에서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요인은 가정 내 권력 관계 및 제도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가정내 남녀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가부장 중심의 가족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교생활척도의 경우 네 가지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교육현장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권력관계와 관련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평등교육제도에 대한 태도를, 세 번째 요인은 성분리적인 진로 교육을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인 네 번째 요인은 남녀의 소질이나 능력에 대한 본질론을 다루는 것이었다. 직업생활척도에서도 네 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요인은 성별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의식을 다루고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평등고용정책요인이었고, 세 번째 요인은 비전형적인 직업에 대한 태도요인,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남성 중심주의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생활척도에 대한 주축요인분석 결과 다섯 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첫번째 요인은 역할 및 능력요인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평등문화 및 정책지향요인이었으며, 그외 反여성주의요인 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 대상의 검사가 성인 대상 검사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남녀평등의식의 구조가 성인의 남녀평등의식에 비하여 단순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3. 성별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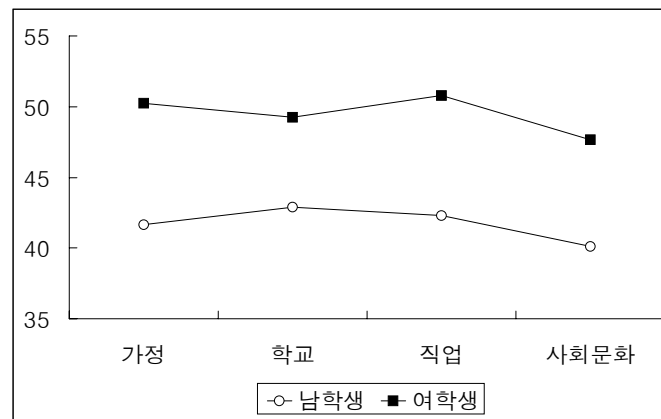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세 번째 작업은 성별 차이에 대한 가설 검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가설 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보일 것이다.

성역할이나 남녀평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예 : 김양희, 정경아, 1999; 김양희, 1991 ; Campbell 등, 1997 ; Helmreich, 1981 등)에서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 진보적, 평등적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검사(김양희, 정경아, 199)의 경우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역시 개별 청소년들이 성 정체화 된 인식을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며, 사회의 성 차별적 구조와 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있는 지를 다루고 있는 만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one-way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네 가지 하위척도는 물론 전체 척도점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더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으며, 이 또한 검사의 타당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성간 차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직업생활척도에서 가장 컸으며, 두 번째가 가정생활척도, 세 번째가 사회문화생활척도,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척도 순 이었다.

<표 1> 성별 남녀평등의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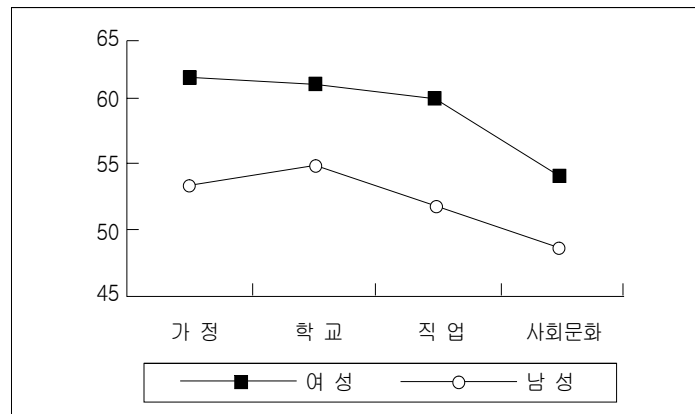
종속변인	독립변인	평균	표준편차	F	df	p
가 정	여	50.245	5.692	1717.452	1	.000
	남	41.669	5.748			
학 교	여	49.252	4.867	1229.053	1	.000
	남	42.909	5.121			
직 업	여	50.790	5.306	1840.552	1	.000
	남	42.277	5.635			
사회문화	여	47.677	5.534	1432.545	1	.000
	남	40.130	5.441			
전체척도	여	197.964	19.367	1937.480	1	.000
	남	166.985	19.444			



<그림 1> 여학생과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을 성인집단(<그림 2>)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등한 의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하위척도별 양상이 서로 달랐다. 즉,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생활척도의 점수가 가장 평등적이었고 그 다음 학교, 직업, 사회문화 순이었으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직업생활의 점수가 가장 평등적이었고, 그 다음 가정, 학교, 사회문화생활이었다. 성인 여성에 비해 여학생들이 직업활동에서의 평등의식이 다른 생활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나타낸다. 이는 여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이 여성이 사회진출과 동등한 제도적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남성의 경우 그와 같은 차이가 덜 두드러졌다. 하위척도별 점수 순위를 보면 성인 남성의 경우 학교생활척도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 가정, 직업, 사회문화였으나 남학생은 학교, 직업, 가정, 사회문화의 순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척도별 차이가 여성에 비해 크지 않았다. 성인이나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사회문화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고, 성차도 가장 작은 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의식이 성 행동이나 문화규범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림 2> 성인 여성과 남성의 남녀평등의식

4. 지역별 차이 검증 : 시군별

가설 2. 남녀 학생 모두 시부의 학생들이 군부의 학생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보일 것이다.

성역할, 그리고 여성 또는 남녀평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태도조사의 대부분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차이를 보고한다. 예를 들어, 김양희 등(1992, 2001)은 성역할 및 남녀평등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시부의 의식이 군부보다 더 진보적, 평등적인 것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대도시 성인 남녀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김양희, 정경아, 1999)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선호의 지표가 되고 있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특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권역에 따라 남녀평등의식이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일부 척도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간 차이가 본 조사에서도 발견된다면 검사지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시부와 군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여학생의 경우는 모든 하위척도와 전체 척도에서 시부와 군부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시부의 학생들이 군부의 학생들에 비해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위척도 중에서 가장 지역간 차이가 큰 척도는 사회문화생활이었고, 가장 차이가 작은 척도는 가정생활척도이었다.

<표 2> 시부/군부별 남녀평등의식의 차이 : 여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평균	표준편차	F	df	p
가정가정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50.512 49.517	5.713 5.577	9.492	1	.002
학 교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49.488 48.609	4.826 4.926	10.128	1	.001
직 업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51.051 50.078	5.189 5.558	10.436	1	.001
사회문화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48.029 46.718	5.428 5.710	17.504	1	.000
전체척도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199.080 194.923	19.105 19.769	14.350	1	.000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하위척도나 전체척도에서 모두 시부/군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시부/군부별 남녀평등의식의 차이 : 남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평균	표준편차	F	df	p
가 정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41.750 41.535	5.875 5.536	.484	1	.487
학 교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42.910 42.908	5.233 4.937	.000	1	.991
직 업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42.421 42.038	5.737 5.459	1.607	1	.205
사회문화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40.230 39.964	5.372 5.554	.829	1	.363
전체척도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167.312 166.445	19.684 19.047	.690	1	.406

성별로 지역효과의 양상을 살펴보니, 시부와 군부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1은 여학생의 경우에만 지지되었다. 이는 환경요인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5.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이번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동 검사 점수와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KSRI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용으로,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Bem(1974)이 고안한 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척도 세 가지 각각에 20개 문항씩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식 7점 응답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항상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검사와 KSRI의 변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KSRI의 문항 중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긍정성 문항 20개를 제외하고 남성성과 여성성 문항 40개 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바에 의하면 KSRI 총 40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9145$ 이었으며, 여성성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772$, 남성성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016$ 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국내에서는 김양희와 정경아(2000)의 연구, 외국에서는 King과 King (1990), King과 Gaffney (1990), Cammarata(1986) 등의 연구에서도 Bem의 성역할 검사(BSRI - Bem Sex Role Inventory)와 남녀평등주의 사이의 판별타당도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KGES-A와 KSRI 사이의 판별성을 입증하였는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Bem이 초기에 양성성 점수를 계산한 방법을 적용하여 남성성 척도 평균에서 여성성 척도 평균을 뺀 값을 양성성 점수로 정의하여 (0에 가까울수록 양성적이고 점수 차이가 클수록 성진형화된 것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전체 척도점수 및 각각의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더니 BSRI의 양성성 점수 및 남성성, 여성성 점수와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검사의 네 가지 하위척도 및 전체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r = -.008 \sim .044$ 사이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KSRI와 KGES-A 사이의 판별타당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

B. 신뢰도 분석

검사의 신뢰도(reliability)란 ‘검사 점수가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며 반복 가능성이 있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순목과 이봉건 공역, 1995 : 187). 신뢰도를 시간 경과에 따른 검사의 안정성(stability over time)의 문제와 검사 자체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의 문제로 나누기도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 즉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응답자가 같은 검사를 두 번에 걸쳐 사용했을 때 두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얻음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검사의 일부분이 어떤 개념을 측정하는데 과연 나머지 부분도 그 개념을 잘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는 흔히 타당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예 : Kline, 1993 ; Guilford, 1956 ; Nunnally, 1978 등).

반면, Cattell과 같은 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높은 내적 일치도가 높은 타당도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Cattell에 의하면 대체로 심리검사는 광범위한 구성개념(예 : 불안, 지능 등)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문항들 사이의 내적 일치도가 높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검사가 협의의 개념만을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경우 신뢰도는 높을지 몰라도 서로 비슷한 문항들로 인하여 측정하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며 협소하므로 타당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Cattell의L 입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는 검사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내적 일치도의 가장 좋은 척도는 알파계수이다. 알파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에는 반분 신뢰도를 내적 일치도의 척도로 주로 사용하였다. 반분 신뢰도는 검사를 반으로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에도 단 한가지로만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과 신

뢰도 계수가 검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제 신뢰도에 근사한 것이지 완벽하지는 않다는 비판이 있다. Spearman과 Brown의 반분 신뢰도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정된 함수를 사용한다.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검사를 원한다면 최소한 문항이 10개 이상이어야 하고, 계수는 0.7 이하로 내려가면 안된다(Guilford, 1956; Nunnally, 1978).

요약하면 신뢰도란 검사점수에서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나타낸다. 그 오차의 근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검사를 한번 실시했으므로 모든 종류의 오차의 원인을 밝힐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인 Cronbacha검증과 Spearman과 Brown의 반분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표 4> 전체 및 하위 척도별 신뢰도

척 도	대 상	Cronbach α	반분검사간의 corr	반분신뢰도 SB	α part1	α part2
가 정	여 학 생	.8398	.7202	.8379	.6936	.7630
	남 학 생	.7951	.6338	.7765	.6694	.6709
	전체학생	.8826	.7797	.8767	.7791	.8110
학 교	여 학 생	.7805	.6195	.7657	.6276	.6840
	남 학 생	.7414	.5991	.7500	.5804	.6401
	전체학생	.8258	.7035	.8265	.6871	.7437
직 업	여 학 생	.8215	.6288	.7727	.7365	.6942
	남 학 생	.7863	.5633	.7214	.7178	.6221
	전체학생	.8770	.7265	.8421	.8141	.7693
사회문화	여 학 생	.7755	.6496	.7882	.6334	.6384
	남 학 생	.7169	.5441	.7055	.5920	.5220
	전체학생	.8263	.6963	.8215	.6892	.7291
전 체	여 학 생	.9398	.8744	.9330	.8955	.8865
	남 학 생	.9232	.8407	.9135	.8721	.8616
	전체학생	.9578	.9093	.9525	.9233	.9210

<표 4>에서 보듯이 전체 척도의 경우 Cronbach α 계수가 .9578이었으며, 특정 문항이 삭제되었을 경우 α 값이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여학생 집단에서 .9398이었고, 남학생 집단에서는 .9232로 나타나 여학생에게서 다소 더 높았다.

<표 4>의 오른쪽 네 개의 열은 척도를 반분하였을 때 각각의 총점 사이의 상관계수, Spearman-Brown의 반분 신뢰도 계수, 각각의 부분에 대한 α 계수 등을 보여준다. 전체 척도의 반분 신뢰도는 Spearman-Brown계수가 .9525였으며 반분된 척도 각각의 총점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는 .9093이었다.

하위척도 중에서 α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가정생활척도로 .8826이었으며, 가장 낮은 척도는 사회문화생활척도이었지만 이 역시 신뢰도 계수가 .8263으로 여전히 비교적 높은 것이었다. 사회문화척도는 이성관계, 사회활동, 개인취향 등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 비교적 이질적이며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당연하다. 하위척도의 반분 신뢰도는 가정생활척도의 경우 .8767, 학교생활척도 .8265, 직업생활척도는 .8401, 사회문화생활척도는 .8215였다. 하위척도에 따라 모집단이 다른 경우 반분 신뢰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네 가지 하위척도 모두에서 Spearman-Brown의 반분 신뢰도 계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적 일치도 산출 결과 전체 척도 및 각각의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는 안심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성인용 검사의 신뢰도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척도의 신뢰도는 응답자가 전체학생이었을 때 .9578, 여학생이었을 때 .9398, 남학생 .9232로, 남녀성인의 경우 .9461, 성인여성 .9347, 성인남성 .9314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위척도별 신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인집단과 청소년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C. 기타 집단별 차이분석

여기서는 앞서 소개한 성별, 시군별 차이외 학교급과 학교유형(공학/별학),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호남권)에 따른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특별히 검사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1. 학교급에 따른 효과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역할 의식이 연령과 관계 있으며, 그 양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Twenge, 1997 등). 전국의 18세~65세 사이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을 검사한 선행연구(김양희, 정경아, 1999)에서도 응답자의 연령을 18~30세, 31~45세, 46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연령집단별 척도평균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남녀평등의식을 발달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다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의 고정관념은 학령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정점을 이룬 다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낮아진다고 한다(Signorella 등, 1993). 중학교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Signorella 등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를 살펴보고, 더욱이 포괄적인 남녀평등의식이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한 만큼, 본 연구에서도 Signorella 등과 같은 논리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더 발달하였을 것이며, 그에 따라 고등학생이 더 평등한 의식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하위 척도나 전체 척도 모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앞서 설명한 예비조사1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남녀평등에 대해 자유 응답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검사가 끝난 다음 토론시간을 가졌을 때 중·고별 응답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 어쩌면 고등학생들의 경우 중학생들에 비해 사회의 차별적 현실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성별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니 여학생의 경우에만, 그것도 가정생활 영역에서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평등하게 나타나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공학과 별학의 효과

선행연구(정해숙과 정경아, 1995)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자아 존중감, 심리적 통제의 유형, 성차와 성역할 의식 등- 이 공학에 다니는가 또는 별학에 다니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유형과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차와 성역할 의식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과 함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는 베타값이 .072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공학의 남학생이 더 평등한 의식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여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생활 경험이 남학생들의 성정형적인 태도와 의식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해석하였다(정해숙, 정경아, 1995 : 140). 아울러, 연구자들은 여학생들 역시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학의 경우 별학보다 더 평등 지향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무숙(1992)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으로, 민무숙의 연구에서는 여학교가 공학보다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고 직업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유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과 별학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2-26>과 같이 여학생의 경우 가정생활 하위척도를 제외하고 학교와 직업, 사회문화생활척도와 전체척도 점수에서 별학 즉, 여학교의 여학생이 남녀공학의 여학생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공학이라 하더라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조하며 더불어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남학생 위주의 교육관행이 남아있고 여학생들로 하여 ‘여성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분위기 때문에 별학의 여학생들이 오히려 공학의 여학생보다 더 진보적 또는 남녀평등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V. 제 언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는 임상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즉, 개인을 ‘매우 불평등한 사람,’ ‘중간 정도인 사람,’ ‘매우 남녀평등한 사람’ 식으로 분류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점수기준도 없다. 대신 동 검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남녀평등의식의 개인이나 집단차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으므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더 남녀평등적’이거나 ‘덜 남녀평등적’이라는 상대적인 비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는 사용자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검사점수를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함으로써 그 개인/집단의 의식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점을 갖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시간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어떤 집단--예를 들어 서울의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의 시간적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남녀평등의식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를 개발하고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문항의 수정과 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젠더 역할 의식이나 태도에 관해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이 검사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검사의 보다 정밀한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검사의 본격적인 활용은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을 이해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고 나아가 애매한 성차별주의(subtle sexism)와 같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청소년용 젠더관련 검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석주 (1985), 『광고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소비자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교육인적자원부 (2001), 『학교명부』
- 김광은 (1997), 성통합 초기 단계에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2권 제1호, 102~114.
- 김남숙, 정진경, 박광배 (1997), 한국 성역할 검사의 수정점수 및 분류기준 산출,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제11권 제2호, 77~90.
- 김남숙 (1997), 『한국 성역할 검사의 수정 점수 및 분류기준 산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9권 제2호, 111~149.
- 김양희 등 (2001) 21세기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 서
울 :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개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7, 15
3~182.
- 김영희 (1995), 학령전 아동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 개발연구, 『아세아 여성 연구』, 183~213.
- 김원홍, 이인숙, 권희완 공저 (1999),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 민무숙 (1992), “성별 학교유형이 학생들의 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 관한 연구-전통적 관점과 여
성주의 관점의 탐색-,” 『여성연구』 제 10권, 제 2호, pp.209~237.
- 성태제 (1996),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해와 실제』, 서울 : 학지사
- 안순덕 등 (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2~92.
- 정진경 (1994), 심리학 연구의 여성학적 접근방법, 『한국 여성학』 제 10집, 283~306.
- 정혜숙 등 (1995) 남녀공학교등학교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별 학교유형이 남녀학생의 교육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기초하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조형 등 (1991), 『주부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
연구소.
- 청북중학교 (2002),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정립』
- 통계청 (1998),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국심리학회 (1998), 『심리검사 : 제작 및 사용 지침서』,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한국행정구역총감편찬회 (1998), 『한국행정구역총감』, 서울 : 한국행정문화원.
- 한정자 등 (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AERA, APA, & NCME (1986),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 Washington, DC, NY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c, 이순목·이봉건 (1995, 공역), 「설문, 시험, 검사의 제작 및 사용을 위한 표준」, 서울 : 학지사
- Antill, J.K., Cunningham, J.D., Russell, G., & Thompson, N.L.(1981), An Australian Sex-Role Scal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3, 169 ~ 183.
- Archer, J.(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measures : A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173 ~ 184.
- Ashmore, R.D., Del Boca, K.F., & Bilder, S.M.(1995),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Gender Attitude Inventory, A structured inventory to assess multiple dimensions of gender attitudes, *Sex Roles*, 32, 753 ~ 785.
- Ajzen, I., & Fishbein, M.(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p, 888 ~ 918
- Bigle, Rebecca S.(1997),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Sex Typ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53 ~ 69.
- Beere, C.A.(1979), *Women and women's issues : A handbook of tests and measures*, San Francisco : Jossey Bass.
- Beere, C.A.(1990), *Gender roles : A handbook of tests and measures*, Westport, C T : Greenwood Press.
- Beere, C.A., King, D.W., & King, L.A.(1984),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 A measure of attitudes toward equality between the sexes, *Sex Roles*, 10, 563 ~ 576.
- Bem, S.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 ~ 162.
- Bem, S.L.(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96 ~ 205,
- Benokraitis, N.V., & Feagin, J.R.(1995), *Modern Sexism*(2n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enson, P.L., & Vincent, S.(198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SATW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 276 ~ 291.
- Berzins, J.I., Welling, M.A., & Wetter, R.E.(1978), A new measure of psychological androgyny based on the personality research for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6, No.1, 126 ~ 138.
- Brannon, R.(1981), Current methodological issues in paper-and pencil measuring instrum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 618 ~ 627.
- Brogan, D., & Kutner, N.G.(1976),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Feb), 3 ~ 40.
- Brown, R., Locus of control and sex role orientation of women graduat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17(1) : 10 ~ 12, 1983.
- Burtler, D., & Geis, F.L.(1990), Nonverbal affect responses to male and female leaders : Implications for leadership evaluations, *Journal of Pe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8 ~ 59.

- Candace Garrett Schau & Lynne Kahn (1977), Children's Sex Stereotype of Adult Occupations
- Cammarata, U.(1986), Scala dell-uguaglianza sociale dei sessi : Primi risultati di una ricerca sul campo per l'adattamento italiano,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 First results from a study using an Italian translation], Dissertation involving Italian translation and use of SRES, University of Padova.
- Cattell, R.B, and Kline, P.(1977), *The Scientific Analysis of personality and Motivation*, London, Academic Press.
- Craig Edelbrock & Alan I, Sugawara (1978), Sex Role Learning Index(SERLI)
- Corner, L (1998), Gender Training Workshop 자료집, 새정치 국민회의, UNDP 주최.
- Comrey, A.L.(1988), Factor-analytic methods of scale development in personality and clinical psyc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6, No.5, 754 ~ 761.
- Cronbach, L.J, and Meehl, P.E.(1995), Construct validity in psychological tests, *Psychological Bulletin*, 52, 281 ~ 302,
- Campbell, B., Schellenberg, E.G., & Senn, C.Y.(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89 ~ 102.
- Drinkwater, B.A.(1979), Social desirability of characteristics of the Bem Sex-Role Inventory, *Australian Psychologist*, 14(3), 311 ~ 317.
- Daniel G, Brown (1956), It Scale for Children(ITSC)
- E, Maricia Sheridan (1978), Children's Perceptions of Sex Stereotyping in Elementary School
- Eagly, A.H., & Mladinic, A.(1989), Gender stereotypes and attitudes toward women and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543 ~ 558.
- Fassinger, R.E.(1994),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Attitudes Toward Feminism and the Women's Movement Scale(FW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389 ~ 402.
- Fischer, J., & Narus, L.(1981), Sex role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nd adulthood, *Sex Roles*, 7(2), 97 ~ 106.
- Galambos, N.L., Petersen, A.C., Richards, M., & Gitelson, I.B.(1985),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for Adolescents(AWSA) :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Sex Roles*, 13, 343 ~ 356.
- Gibbons, J.L., Stiles, D.A., & Shkodriani, G.M.(1991),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family and gender rol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ex Roles*, 25, 625 ~ 643.
- Glick, P., & Fiske, S.T.(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 ~ 512.
- Glick, P., & Fiske, S.T.(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 Measuring Ambivalent sexist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19 ~

135.

- Gorsuch, R.L. (199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Its role in item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3), 532 ~ 560.
- Gough, H.G. (1964),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lif.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Guilford, J.P. (1956), *Psychometric Methods*, New York, McGraw-Hill.
- Hathaway, S.R., & McKinley, J.C. (1943),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New York : Psychological Corp.
- Harris, A.C. (1994), Ethnicity as a determinant of sex role identity : A replication study of item selection for the Bem Sex Role Inventory, *Sex Roles*, 31, 241 ~ 273.
- Helmreich, R.L., Spence J.T., & Wilhelm, J.A. (1981),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Sex Roles*, 7, 1097 ~ 1108.